

나주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교육인재경영' 부문 대상 쾌거

혁신 교육 정책으로 미래 인재 키우는 명품교육도시 위상 확립

전라남도 나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에서 '교육인재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은 매경미디어그룹과 매경닷컴,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나주시는 교육 중심 정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나주시는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교육'을 꼽으며 지역 자원과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미래 인재를 키우는 명품교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교육발전 특구 지정 ▲평생학습 정책 강화 ▲지역

▲나대용 융합과학캠프 ▲예절 배움터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2월에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며 2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글로벌 특화교육 ▲지역 자원 연계 맞춤형 교육 ▲전문·기능인력 양성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전남 최초로 도입한 '나주에(愛) 배움바우처'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에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도 펼치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흥군이 전라남도의 핵심 인구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흥군은 총사업비 174억 원 가운데 도비 150억, 군비 24억을 투입해 장흥읍 권

장흥군, '전남형 만원주택' 선정 "청년·신혼부부 희망을"

월 임대료 1만원 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기대

산리 7번지 일원에 54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 동을 조성할 예정이다.

세대는 60㎡형 29세대, 85㎡형 25세대로 구성되며,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공동체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이루고 있다.

2023년 7월 개소한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강남인강 무료 수강 지원

어린이놀이터, 돌봄공간 등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입주민 자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선정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무를 수 있는 실질적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며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 정주 매력 넘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해당 부지는 입지 여건이 뛰어나 군청, 도서관, 병원, 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광주·순천·목포 등 광역도시와도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센터, 힐링텃밭,

"올 가을에 결혼할 거야!"

'솔로탈출Ⅱ, 심쿵 in담양' 참가자 모집

담양군(군수 정철원)과 담양군가족센터(센터장 김주연)가 결혼저항기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청춘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준비한다.

지난해 『솔로탈출Ⅰ』이 빅히트를 치면서 큰 호평을 받아 2025년에도 추진하게 된 청춘어울림 『솔로탈출Ⅱ, 심쿵 in담양』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하여 2024년 담양군과 함께하는 담양군가족센터의 '가족수 늘리기' 특수시책으로, 첫 해에는 12쌍의 미혼남녀 만남에서 4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그중에서 3쌍이 결혼까지 성사되고 있는 중으로 담양군에서는 가을 짝, 전통혼례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첫 만남은 5.23(금) 오후 3시 담양리조트 대강당(송강홀)에서 펼쳐지게 되며,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혼 남·여(남 25세~45세, 여 20세~45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춘어울림 첫 만남에 이어 또 만남(풍납짱짱 데이) 행사는 1박 2일 캠프로 진행하게 된다.

좀 더 로맨틱한 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이 서로를 탐색하고 대화하면서 핑크빛 무드를 조성하여 단순한 소개



팅을 넘어 진지한 커플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더 행복한 담양을 표방하고 있는 신임 정철원 담양군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좀처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청춘들이 한마당 이벤트를 통해 인연을 찾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야말로 결혼 기피와 저 출생을 해소시키고 정주인구를 늘려 나갈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시책이 될 수 있는 만큼, 담양에서 건강한 가정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청춘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카메라 뉴스



광양시, 4월 1일 도시민 주말농장 개장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 2,000㎡ 규모의 주말농장이 지난 4월 1일 개장했다고 4일 밝혔다.

광양시는 매년 도시민 주말농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또한 주말농장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시는 지난해처럼 개인별 직접 추첨을 통해 주말농장 이용자 160세대를 선정하고 퇴비 및 비료사용, 경운, 구획정리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했다.

4월 1일 열린 개장식에서는 주말농장 이용 시의 유의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주말농장 이용자에게 상추 등의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다.

광양/신선호 기자



곡성군, 전남과학대학교서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홍보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3일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군은 행사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전남과학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아침 식사를 홍보하고, 곡성물 및 지역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전입신고 안내도 진행하여, 전입 지원금 혜택을 안내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전남과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5,000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1식당 단가는 5,500원으로, 국비·도비·군비 및 학교·학생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곡성/이정수 기자



영광군, 불만 및 특이민원 응대 민원담당자 교육 실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3일 민원담당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불만 및 특이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고충성·특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반복되는 불만 민원과 감정노동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 관리 기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 관계자는 "불만·특이 민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이번 교육이 민원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동시에 민원담당 공무원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친절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